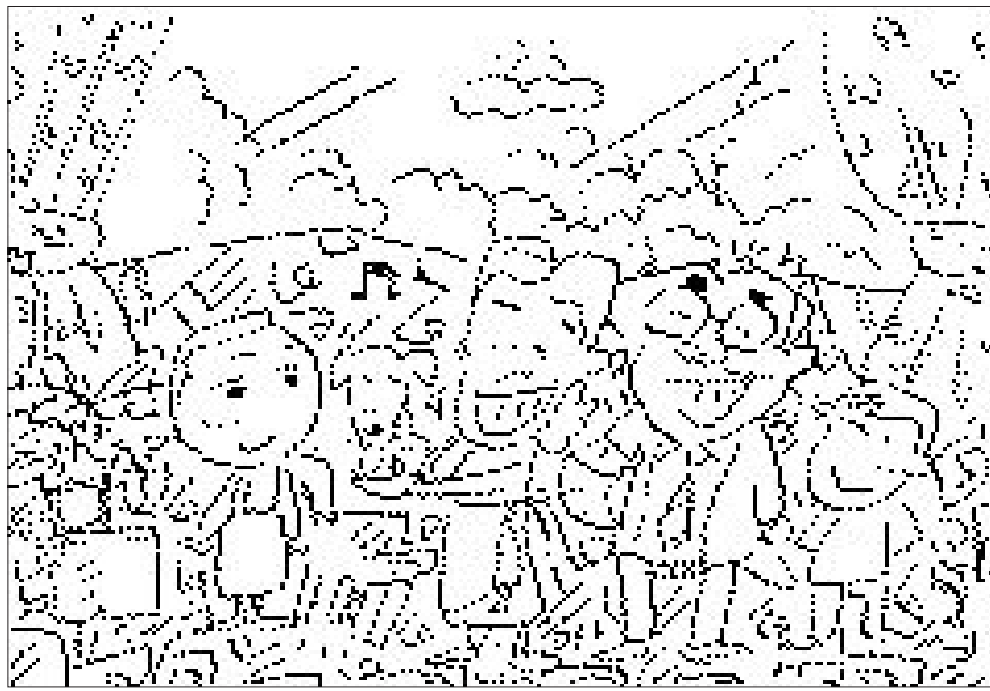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 91 >



찾아(보)세(요) 은행원, 다리미, 아이스크림, 송사리, 고추, 뚝배기, 우산, 비둘기, 열대어

강아지와 남편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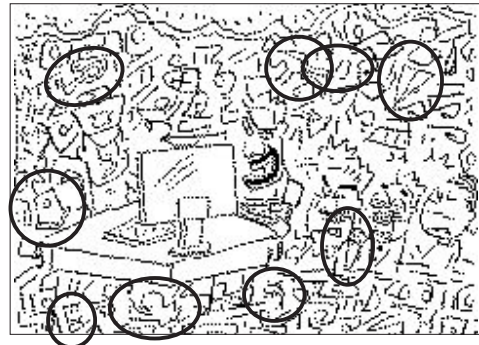
- 1. 끼니를 챙겨줘야 한다.
- 2. 가끔 데리고 놀아줘야 한다.
- 3. 복잡한 말은 못 알아듣는다.
- 4. 초장에 버릇 잘못 들이면 내내 고생한다.

▲남편이 강아지보다 편리한 점

- 1. 돈을 받아준다.
- 2. 간단한 심부름은 시킬 수 있다.

▲강아지가 남편보다 좋은 이유

- 1. 신경질 날 때 발로 '뺨'칠 수 있다.
- 2. 한 집안에 두 마리를 길러도 뒤탈이 없다.
- 3. 외박을 하고 들어와도 꼬리치며 반가워한다.
- 4. 살다가 싫증나 버릴 때 변호사가 필요없다.



지난주 정답

사람 옆 얼굴, 송사리, 새집, 담배파이프, 셔플북, 바늘, 고추, 종이비행기, 제비, 병따개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

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김동애(광주시 북구 오치동) 정현용(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95년 9월 20일 제 1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요즘 '광주비엔날레' 하면 신정아(35)씨부터 떠올리는 독자들이 많다. 지난 1995년 9월 20일, 세계인의 문화예술올림픽으로, 한국 최대 규모의 미술 이벤트이자 아시아 최고라는 광주비엔날레 제 1회 행사가 열렸다. 아시아권에서 처음 열리는 것. 말 자체가 생소해 '비엔날레가 무슨 말이냐고 묻는 시민들도 많았고 광주의 제반여건상 비엔날레 개최가 무리라고 보는 여론도 높았다.

술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광주중공업공민 문화센터 일원에서 첫 행사가 시작됐다. 개막식 테이프 컷팅에 이어 본 전시관이 공개되자 광주 비엔날레를 창설한 강은태 전 광주시장의 경우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구름 관중들이 몰려들었고 본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지구촌 미술축제', '세계로 미래로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다.

제 1회 비엔날레의 주제는 '경계를 넘어'. 국가·민족·이념·종교 등을 초월해 세계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의미에서다.

첫 시도는 대성공이었다. 60일간 다녀간 관람객만 163만5천명에 달했다. ▲2회 90만8천명 ▲3회 61만4천명 ▲4회 43만7천명 ▲5회 51만8천명 ▲6회 70만명 등 6회까지 치러지는 동안

관람객 수는 가장 많았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베니스 비엔날레도 최대 관람객이 100만 명을 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일궈낸 것이다.

특히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국제적 문화예술 축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가슴 벅찬 자부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문화 예술을 통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높았다.

좋은 일만 있을까, 잡음도 있따. 1997년 제 2회 대회부터 다른 비엔날레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제 6회 광주비엔날레의 경우 행사를 앞두고 축제를 총괄하는 수석 프로그래머가 사표를 내는 등 실망스러운 일도 생겨났다. 행사 운영의 미숙함과 수익모델 창출 등 마케팅 전략 부족 등은 매 행사 때마다 보도됐다. 관람객 수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그동안의 행사라는 말도 터져나왔다. 내년 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으로 선임된 신정아씨의 화려 위주는 13번째 이어져온 광주비엔날레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비엔날레 개최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지난 1995년 9월 20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제 1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광주일보 자료사진)

제16회 광일배 개인전 3·4위전

현재의 형세는 미지수인 백보다 확정지가 많은 흑 우세의 국면. 좌하 일대에 백집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되고 있다.

백 152로 귀를 지킨 것은 이 한 수이며 다음 김영수 5단은 즉각 흑 153으로 쳐들어 가 기세를 올린다. 백 154로 차단했을 때 흑 155로 내러선 수는 선수. 그런데 당연해 보이는

이 수가 문제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1'의 흑 1로 붙이고 다음 3으로 넘어가는 것이 유리한 흑의 입장에서 편했다. 김영수 5단은 흑 157로 모양은 근사하게 잡았으나 백도 158로 반격의 여지가 생겨 오히려 바라는 바다. 그런데 160이 과수로 모처럼 맞이한 찬스를 날리고 만다. 이 수로는 '참고도2'의 1로 끊고 9까지 연결했으면 오히려 백이 유망했다. 유희주 5단은 형세를 비판하고 크게 싸웠으나 171까지 위기에 봉착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허영호 6단, 윤혁 5단 제압

허영호 6단이 18일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배 신예프로 10절전 A조 리그에서 윤혁 5단을 155수 만에 흑 불계로 꺾었다. 허 6단은 우변에서 커다란 실리를 차지한 뒤 좌변을 파고드는 백을 제압, 항서를 받아냈다. 허 6단은 리그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박승호 초단(3승 1패), 진동규 3단(3승 2패)과 함께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B조 리그는 유준상 6단이 리그 1위(4승 1패)를 차지한 가운데 김수용 2단과 배준희 2단(이상 3승 1패)이 동률대국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대회 우승상금은 1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스를 날린 과수 8보(152~171)

白 유희주 5단 (KT전남본부 A)

黑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바둑소식

허영호 6단, 윤혁 5단 제압

허영호 6단이 18일 스카이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기 SK가스배 신예프로 10절전 A조 리그에서 윤혁 5단을 155수 만에 흑 불계로 꺾었다. 허 6단은 우변에서 커다란 실리를 차지한 뒤 좌변을 파고드는 백을 제압, 항서를 받아냈다. 허 6단은 리그 3승 1패를 기록하면서 박승호 초단(3승 1패), 진동규 3단(3승 2패)과 함께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B조 리그는 유준상 6단이 리그 1위(4승 1패)를 차지한 가운데 김수용 2단과 배준희 2단(이상 3승 1패)이 동률대국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대회 우승상금은 1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82. 전국 16개 시·도 및 해외동포 선수·임원 등 3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체육행사가 오는 10월 8일부터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1993년 제 74회 대회 개최 후 14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불거리·먹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종합문화축제로 치러질 예정이다. 무슨 대회일까요?

① 전국체육대회 ② 소년체육대회
③ 도민체육대회 ④ 장애인체육대회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9일(음 9월 9일 丙辰)

子 36년생 오늘은 마음껏 웃는 날이다. 48년생 친구끼리 다룬다. 60년생 전생보다는 현상으로 처리하면 좋은 결과 얻는다. 72년생 신중함 하루를 보내라. 84년생 직장상사와 갈등이 줄어든 일이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0, 33

丑 37년생 많이 얻으려거든 많이 베풀어라. 49년생 시비 구설이 있으면 조심해야 하리라. 61년생 힘이 든 하루였으니 휴식을 취하라. 73년생 상황 따라 곁들이 바귀나니 심사숙고해야 한다. 85년생 불만족스런 하루다. 행운의 숫자 : 15, 41

寅 38년생 달빛으로는 괴일이 익지 않으니 적절한 방법을 취하라. 50년생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62년생 살מות 말 한마디가 오해가 된다. 74년생 내 것 주고 먹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4, 16

卯 39년생 남의 입에 놀아나다. 51년생 박은 조용하니 집안이 시끄러우니 집안을 살피라. 63년생 변화는 새로운 일을 만든다. 75년생 귀한사람이 꼭꼭 찾으니 준비하고 있으라. 행운의 숫자 : 22, 43

辰 40년생 가끔은 싸우는 것이 부부사이지만 지나치면 큰 일 난다. 52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이 있어야 하나 오늘은 과감하게 추진하라. 64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76년생 밤손님이 보이니 문단속을 잘하라. 행운의 숫자 : 02, 31

巳 41년생 뜻하지 않은 여인을 만날 수도. 53년생 발전은 약속되었고 시작만 남았다. 65년생 과인은 손재를 부르니 불타라 두드러져 건너라. 77년생 실례는 과욕에서 출발하니 착실하게 진행하면 성공한다. 행운의 숫자 : 19, 42

午 42년생 불려가자 갑자기 나타나니 행동에 신중해야 하리라. 54년생 배우자의 불려가 예상하니 잘 보살피라 하리라. 66년생 오늘은 가정에서 인내해야 하리라. 78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 18, 30

未 43년생 가정에 대고 예상되니 하루 종일 살피라. 55년생 가까운 사람간의 큰 싸움이 생길 수니 신뢰를 쌓아 하리라. 67년생 대화가 많으면 오해는 없으리라. 79년생 길으로 보기는 짐재워나 실속은 있다. 행운의 숫자 : 12, 25

申 44년생 새문자를 잘 살펴보고 괴로움이 반성하라. 56년생 단호한 결단을 내리라. 68년생 남의 말을 듣지 마라. 80년생 모든 일이 지연되니 좋은 쪽으로 향한다. 행운의 숫자 : 13, 43

酉 45년생 대운으로 향하나 그릇이 작구나. 57년생 새로운 일은 활발한 일터가 되니 재물이 생길 수다. 69년생 친인척의 조언으로 도움을 얻어라. 81년생 천천히 신중하게 결정하라. 다짐은 없다. 행운의 숫자 : 23, 39

戌 46년생 잘못된 문자로 눈물이 난다. 58년생 영통하게 큰일을 벌려라. 70년생 호사다마 잘나가는 일도 다시 한번 살펴라. 82년생 손실은 투자가 되니 너무 걱정을 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0, 27

亥 47년생 잘 될 때를 조심하라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난다. 59년생 부인의 주변에 좋은 일이 생긴다. 71년생 뜻대로 진행되나 이익은 미지수다. 83년생 미안한 협조자가 도움을 주지만 기약은 없다. 행운의 숫자 : 24, 32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995>

My suitcase hasn't come out yet
제 여행 가방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A : Excuse me. My suitcase hasn't come out yet.
B : In that case, please go to the claim office.
A : Where is the office?
B : Take the escalator down, and the office is right there.

A : 실례합니다. 제 여행 가방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B : 그럴 경우라면, 클레임 사무소로 가세요.
A : 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B :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면, 바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 suitcase(여행가방), bag(손가방), baggage(짐).
* claim baggage = claim check(수하물 상환증)
* escalator : 자동 계단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995>

傳説(でんせつ)の動物(どうぶつ)なんです。
전설 속 동물이예요

A : あら、不思議(ふしぎ)な動物(どうぶつ)ですね。
B : これはカッパと言(い)って、川(かわ)の中(なか)に住(す)む日本の傳説(でんせつ)の動物(どうぶつ)なんです。
A : そうですか。かわいいですね。

A : 어머! 신기한 동물이네요.
B : 이것은 갑빠라고해서 강속에 사는 일본의 전설 속 동물이예요.
A : 그래요, 귀엽네요.

カッパ: 갑빠는 일본 전설속의 동물로 인어나 용 그리고 외계인 등과 같이 '未確認動物(みかくにんどうぶつ)' 미확인생명체(동물)이다.
傳説(でんせつ): 전설
住(す)む: 살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185>

不用
필요 없어요

A: 咖啡(카피)가요?
Ka fēi jiā nǎi ma?
커피가 있어요?
B: 不用。
Bù yòng.
아니요.
A: 加糖(가탕)吗?
jiā táng ma?
설탕을 넣어야 하나요?
B: 不用, 谢谢。
Bù yòng, xiè xiè.
아니요, 감사합니다.

A: 커피에 우유 넣을까요?
B: 아니요.
A: 설탕 넣을까요?
B: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加 [jiā] 넣다, 첨가하다
奶 [nǎi] 우유
糖 [táng] 설탕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7-8

한자 이야기 <612>

璠耆考妣(자린고비)
옥터 자, 이꼰 린, 죽은아버고, 죽은어머니

구두쇠의 대명사인 자린고비(璠耆考妣)는 원래 '절인 고비'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고비(考妣)'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이고, 여기서의 제사 지낼 때 쓰는 지방(紙幣)을 의미한다. '지방'은 원래 제사가 끝나면 불사르게 되어있으므로, 제사 때마다 종이를 바꾸어야한다. 하지만 그 종이 아까워서 한번 썼던 것을 기름에 절여서 두고두고 다시 쓰는 사람이 있어, 그를 '절인 고비(考妣)'라고 불렀다가 변음(變音)하여 '자린고비'가 되었다고 한다. 마침 변음한 자린(璠耆)도 '인색한 마음'의 뜻이므로, '죽은 부모에게 인색하다'는 뜻이 된다.

자린고비는 구두쇠이면서 검약·검소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에는 예부터 가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일화와 예찬이 많이 전하고 있다. 그중 영조(英祖)때 음성의 자린고비 조족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여러 가지 전하는 이야기 중, 제사상에 올렸던 굴비를 제사가 끝난 다음 천장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서 밥 한 그릇을 먹었는데 행여 식구들이 두 번 이상 쳐다보면 '애, 너무 짜다 물결라'하며 호통을 쳤다는 일은 유명하다. 이렇게 절약한 재산으로 그는 주변사람에게 자신을 베풀어 '자린고비(慈仁考妣)'로 불려지고, 조정으로부터 가자(加資·정3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까지 받았다고 한다.

<한예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